

제1권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이 보관되어 있던 마키에 옻칠함.
덮개에는 후지와라 가문을 상징하는 등꽃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

'가스가곤겐'이란 일본 나라현의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모셔진 다섯 명의 신들을 총칭하는 말로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에는 이 신들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이온지 긴히라(1264~1315)라는 귀족이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봉납하기 위해 제작을 의뢰하여 1309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림과 글로 구성된 '두루마리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총 20권으로 이루어진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에는 종교적인 일화부터 역사적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활극과 모험, 기적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카시나 다카카네의 뛰어난 건축묘사 기법을 보여주는 예 (제1권)

제12권

| 국보 |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

—일상과 기적을 생생하게 묘사한 걸작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의 제작배경과 특징

사이온지 긴히라(1264~1315)는 유력 귀족인 후지와라 가문의 분가인 사이온지 가문의 당주였습니다. 14세기 초두에 고우다 상황(1267~1324)과의 대립을 계기로 조정에서 지위가 위태로워진 긴히라는 1306년 1월 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 그는 지위를 되찾고 1309년에는 좌대신(조정의 실질적인 최고위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실추된 지위를 회복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 긴히라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지와라 가문의 조상신을 모신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봉납할 두루마리 그림의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은 두루마리 그림들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그림은 궁정화가였던 다카시나 다카카네(생몰년 미상)가 담당하였으며, 가스가 신들의 기적을 묘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총 20권의 두루마리에 담아냈습니다. 그림은 종이보다도 얇고 부드러운 비단에 그려졌습니다. 또한, 소중하게 보관되어 전해져 온 덕분에 보존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할뿐더러 제작 당시의 선명한 색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이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봉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정기적인 열람을 의도한 작품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카카네의 그림은 건축물을 상세하고 충실히 묘사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변해가는 숲에 눈발이 흩날리는 모습❶, 맛없는 음식을 **바닥에 버리**는 인물❷에 대한 유머러스한 묘사 등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에는 매력적인 놀라움과 평범한 일상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1권

가스가곤겐이란?

가스가곤겐이란 다섯 명의 개별 신들(①다케미카즈치노미코토, ②후쓰누시노미코토, ③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 ④히메가미, ⑤아메노오시쿠모네노미코토)을 뜻하며, 이 신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인 '가스가다이묘진(春日大明神)'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스가곤겐은 일본 나라현의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모셔져 있으며, 이 신사 주변에 서식하는 사슴들은 가스가곤겐의 사자(使者)로 여겨집니다.



가스가타이샤 신사 (일본 나라현)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의
발원자 '사이온지 긴히라'의 초상
*「천자섭관어영」그림의 일부

제19권

春日權現驗記繪

고쿄 산노마루쇼조칸

1993년에 문을 연 산노마루쇼조칸에는 황실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미술품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귀중한 걸작으로 꼽히는 수장품들은 서적과 회화, 공예품부터 쇼와 천황(1901~1989)을 비롯한 황실 구성원들이 사용했던 물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수장품들은 나무, 종이 또는 비단으로 제작되어 있어 손상되기 쉽고 빛과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따라서 수장품의 보존과 복원은 지속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상 한정된 기간 동안만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된 수장품은 전체의 절반 미만으로, 향후 수많은 귀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동일한 작품이 여러 차례 전시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방문하실 때마다 새로운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수장고와 전시실을 확충하고자 새로운 시설의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1월에는 '고쿄 산노마루쇼조칸'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리뉴얼된 시설의 일부가 개관되었으며, 2026년에 전관 개관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시설의 외관에는 1968년에 준공된 궁전의 건축 양식이 반영되었습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더불어 마름모꼴 장식, 녹청색 지붕,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된 빗물받이 사슬 등 전통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The Museum of the Imperial Collections,
Sannomaru Shozokan
皇居三の丸尚蔵館

'가스가타이샤 신사 중문 및 오로(御廊) 난간' 촬영자: 구와바라 에이분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본지) 촬영자: 시로노 세이지(도쿄문화재연구소)
◆2024년 10월 25일 발행 ◆편집·발행 : 고쿄 산노마루쇼조칸 ◆원고 제공 : 관광청
◆디자인 : 나카지마 후미히코 ◆인쇄 : 다이코인쇄주식회사

©2024 The Museum of the Imperial Collections, Sannomaru Shozokan 무단 복제 및 전재, 배포 등을 엄금합니다.

고쿄 산노마루쇼조칸 홈페이지